한국사회복지학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61, No. 1, 2009. 2, pp. 81-107.

순직군인 배우자의 여성한부모로서 사회 재적응 경험*

이 윤 수
(부산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순직군인 배우자가 여성한부모로서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겪게 된 재적응 경험은 어떠한가? 순직군인 배우자의 삶에서 '순직'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가지고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으로 구성된 자조집단 ○○회에 참여하여 여성한부모의 경험을 심층면담과 참여관찰로 탐구하였다. 현상학적 이론과 분석방법을 통해 순직의 의미와 본질을 살펴보았으며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순직공군조종사부인의 특수한 취약성에 관한 경험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연구 분석에 따르면 연구 참여자는 배우자의 순직과 함께 잃어버린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고군분투해 오면서 스스로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 확신한다. 특히 자조 집단의 참여와 활동은 자신들을 의식해 주기를 바라고,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순직'에 대한 죽음의 가치와 평가, 과거에 대한 역사성은 레질리언스 보호요인 중 '신념 체계'가 되어 순직군인 부인들의 삶에 중요한 존재 의미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대한 논의는 유가족을 비롯한 군인과 그 가족들에 대한 국가 정책과 보훈처 및 군 조직에서 보다 실질적인 사회복지실천 서비스를 응용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 순직군인, 여성한부모, 레질리언스, 사회 재적응, 자조집단

1. 서론

급속한 산업화와 과학 문명의 발달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기여를 했으나 예상치 못한 불의의 사고들 또한 증가시켜 왔다.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상실감은 인간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게 되며 어쩔 수 없는 '죽음'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인해 복합적인 '위기'를 동반하게 된

* 본 논문은 연구자의 2008년 2월 박사학위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한 것임을 밝힙니다.

다. 불의의 사별은 극심한 상실감에 따른 스트레스나 외상(trauma)을 가져와 일정한 슬픔의 과정이 지나고 나서도 오랫동안 개인의 내면과 사회 적응에 영향을 주는 파괴적인 사건의 하나로 볼 수 있다(Weiss, 1988). 특히 군(軍)의 핵심 전력 중 하나로 인정되어 고도의 기술과 체력을 요구하는 공군조종사의 훈련은 불의의 사고 발생으로 복합적인 위기를 가질 수 있는 특수한 죽음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고도의 훈련과 공군 직무 특성 그리고 비행 관련 기계적 결함 등 여러 복합적인 원인과 이유는 전시뿐 아니라 평시에도 많은 공군 조종사의 인명 피해[1]를 초래하고 있다. 공군조종사의 순직은 군인의 '임무 수행에 대한 의무'를 위한 순직이므로 다른 일반적인 재난이나 사고와는 다른 차별성을 가지며, 군 조직의 핵심 엘리트 손실, 항공기 손실에 따른 국방비 손실과 사고 원인 등에 대한 복합적인 논쟁을 발생시키고 국제 정세와 함께 국외의 정치·외교·군사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순직 사고로 인해 가장 큰 충격을 받는 유족들은 군 조직이나 국가 및 사회에서 바라보는 일시적인 관심과 논쟁과는 다른 차원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순직공군조종사 부인들은 가족발달 단계 중 비교적 초기[2] 단계에 남편과의 사별을 미처 준비하지 못한 미해결된 애도를 경험하게 되어 장기적으로 정신적 외상(trauma)을 가져올 수 있는 심각한 위기상태에 노출 된다. 또한 군은 목숨을 담보한 소명집단이고 평시에도 항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하는 특수 목적적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순직공군조종사 부인들은 사회와 분리된 제한된 환경에서 생활하면서 계급 질서가 엄격한 군 문화에 적응해왔다. 이러한 이유로 순직 사고로 인한 복합적인 위기 상황은 군에서 사회로 갑자기 분리되면서 사회 재적응을 더욱 힘들게 만든다. 이러한 순직공군조종사 배우자의 특성은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없는 한정된 집단만의 특수한 경험으로 보일 수 있다. 즉, 순직공군조종사 배우자의 복합적 위기와 고통 그리고 문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알지

1) 1990년 이후 전투기 추락사고 중 순직 일지(구체적인 사고 발생 지명은 삭제하고 제시함)

연도	내 용
1994	6. 10 F-4E 팬텀기 1대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10. 19 훈련비행 중 F-5B 전투기 2대 충돌, 조종사 1명 사망
1995	1. 5 훈련비행중이던 T-59호크 충돌, 조종사 4명 사망
1997	4. 9 F-5E 임무 수행 중 조종사 1명 사망
1998	5. 8 블랙이글 소속 A-37 전투기 1대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1999	9. 14 F-5E 전투기 1대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2000	10. 4 F-4E 추락
2001	10. 5 F-4E 전투기 훈련 중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2003	5. 13 F-5E 전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9. 19 F-5E 전투기 2대 임무수행 중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2004	3. 11 F-5E 전투기 2대 서해 상 충돌, 조종사 2명 사망
2005	7. 13 F-5E, F-4E 서해와 남해에 잇따라 추락, 조종사 4명 사망
2006	5. 5 공군 블랙이글 A-37전투기 추락, 조종사 1명 사망
2007	7. 20 KF-16 전투기 1대 서해상 추락, 조종사 2명 사망
2008	11. 4 F-5E 전투기 충돌, 전투기 조종사는 비상 탈출

2008. 11.4 연합뉴스 (http://media.daum.net/nms/service/news/print/print-newsid=20)

2) 공중근무의 임무수행을 주로 하게 되는 시기는 조종사의 계급 및 연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결혼 적령기를 전후로 가장 많은 훈련에 임하게 된다.

못하기 때문에 필요한 서비스와 정책을 공론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지만 순직군인 배우자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여러 지원책과 서비스는 우리나라 전체 군인과 가족들의 사기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미래의 국가 존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와 사회의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불의의 사고는 세계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존자와 유족들의 극심한 상실감과 복합적인 위기는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복지실천 영역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

하지만, 특수한 위기를 가지는 사별 중 불의의 사고(산업화 시대에 교통사고 등 인간의 의도적 행위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 자살, 타살 등의 특수한 죽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태에 있으며, 이런 소수의 연구들조차도 간호학과 심리학에서 단편적이고 부분적인 연구만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상우, 2004; 김용분, 2005). 또한 배우자의 사별로 인한 심리적 충격에 대한 연구는 심리학, 간호학 등에서 주로 연구되었고 대다수의 연구는 예상된 질병과 노화 현상으로 인한 노인의 죽음에 초점을 두는 한정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Leichtentritt and Rettig, 2000; Lynch and Abrahm, 2002). 또한 사회복지 관점에서 보는 사별에 대한 연구[3]는 대부분 사별 여성한부모의 심리사회적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노인에게 집중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존의 사별 여성한부모에 대한 연구들로는 배우자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그들의 갑작스런 상실감과 사회 재적응의 전체적인 경험을 알아낼 수 없는 한계를 지닌다. 심리학과 간호학 연구의 초점은 배우자를 상실함으로서 받게 되는 심리적 충격과 치유 방안이었다. 하지만 남편과 사별한 대다수의 여성한부모는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 현실에 직면하게 되고 사회생활에서 느끼는 이차적 상실감 또한 크기 때문에 사회 재적응과 관련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와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실천은 사회과학적 지식구축의 방법만으로는 충분하게 파악해 낼 수 없는 인간관계를 둘러싼 '의미(meaning)와 신념 체계(body of beliefs)'라는 고유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Walsh, 1998). 이러한 관점에서 기존의 양적 연구 방법은 개인의 내면적인 심리적 위기와 사회 재적응의 과정을 나타내기 어려웠으며, 경험의 본질과 의미가 설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순직공군조종사 부인들의 여성한부모로서의 사회 재적응의 경험에 대한 본질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별에 대한 상실감은 가족구성원에게 고통과 긴장을 안겨 주며 가족의 안정을 위협하는 강력한 위기로 지적되지만, 또 다른 성장을 가져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김기태, 2006). 많은 연구와 같이 많은 여성한부모와 자녀들은 오히려 어려운 상황을 더 잘 극복해 낼 뿐만 아니라 사회에 잘 적응하는 개인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레질리언스 관점에서 불의의 순직 사고로 배우자와 사별한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을 대상으로 갑작스런 배우자 상실에 따른 복합적인 심리적 충격과 사회역사적 맥락에서의 사회 재적

3) 사별과 관련된 연구는 병원 안에서의 질병과 건강에 초점을 둔 의학과 간호학에서 바라보는 관점(김순옥, 1992; 전미영, 1997)과 심리적 충격에 중점을 두는 심리학적 관점(Keith, 1988), 유족들에게 위안을 주기 위한 종교적 관점(문종현, 2003)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사회 통합과 사회 재적응에 특별한 초점을 두는 사회복지학에서는 호스피스를 포함한 노인과 병자의 죽음에 대한 연구(심우영, 2006; 손지영, 2007)와 여성한부모와 자녀의 적응의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한 기능적 결함에 초점을 둔 연구(박세경, 2005; 김진희, 2007)가 대부분이었다.

응 경험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현상'에 대한 본질을 밝혀 군과 사회복지와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사회복지 실천 개입에 대한 함의를 제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순직군인 배우자가 여성한부모로서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겪게 된 재적응 경험은 어떠한가? 순직군인 배우자의 삶에서 '순직'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2. 철학적 배경과 문헌고찰

1) '존재와 시간', 그리고 순직군인의 삶과 죽음

Heidegger는 '존재와 시간'에서 존재의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하며, 시간을 모든 존재 이해의 가능한 지평으로 해석하고자 했다. 그 가운데 역사성의 이해와 현존재의 생기 그리고 현존재의 상주성과 시간성으로 존재 이해를 설명하고 있다. 역사는 흔히 지나갔다고 의미하지만, '사람들은 역사로부터 도피할 수가 없다'고 말할 경우가 있다. 이 때 역사는 지나간 것이긴 하지만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소광희 역, 1998). 물론 지나간 것으로서 역사적인 것은 지금과 오늘에 '실제적'이라는 의미에서 현재와 적극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순직 군인 배우자에게 '순직'이라는 의미는 시간의 흐름과 자신의 역사성에 있어 자신이 받아들이는 죽음의 가치와 연관된다. 이를 위해 군에서의 죽음에 왜 '긍정적인 죽음'의 가치를 부여하는지 먼저 논의되어야 한다. 군에서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적인 죽음과는 차이가 있는 예외적인 죽음으로 논의될 수 있다. 이들의 죽음은 일반적인 사고와 자연적인 죽음 등과 다른 '긍정적 원인(good cause)'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군 조직에서의 임무 수행 중 순직은 현실적(real)이고 진실한(genuine)성격을 지닌다. 하지만 이러한 죽음도 동(同)시대의 사회 안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독일과 일본의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군인의 죽음은 '희생적인 애국심'이 포함되지 않는다. 즉 평화 유지와 세계 인류를 위한 인도주의적 성격이라는 틀 안에서 '긍정적인 죽음(good death)'이라는 의미가 성립된다(Ben-Ari, 2005). 이렇게 죽음에 대한 가치에 따라 개인과 환경의 맥락 속에서 같은 죽음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으며 사회와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분위기와 체계에 따라 달리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 죽음에 대한 의미와 가치는 사람마다 느끼고 생각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가치 있는 죽음이란 자신의 죽음이 생명 가치를 실현하거나 보위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며, 생명의 마지막 순간 자신의 선한 인격을 집중해서 표현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마지막 수단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을 미리 생각하고 있는 생존 태도는 삶의 마지막까지 지속적으로 인생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여 삶과 마찬가지로 죽음을 통해서도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도록 한다(何顯明, 1993).

2) 사별로 인한 여성한부모와 보훈 관련 연구 동향

사별과 관련된 신체적·정신적 충격은 병리적 현상으로 보지 않고 당연히 거쳐야 할 슬픔과 비탄의 한 과정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갑작스런 사별은 인생에서 가장 큰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와 후유증을 가져오게 된다. 대부분의 배우자 사별과 관련된 양적 연구에서 배우자와 사별 직후 여성한부모의 정신 건강에 대한 수치는 매우 낮게 검사되었다(Shuchter and Zisook, 1993; Ungar and Florian, 2004). 그러나 여러 연구에서 소수의 개인적 차이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안정을 찾기 시작한다. 이러한 심리적 충격은 그것에 대한 대처와 의미를 어떻게 두는지의 여부와 맥락과 잃어버린 관계에 대한 표현에 따라 여러 양식으로 구분되어 나타난다.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를 잃은 생존자는 일반적인 사별을 겪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대다수의 경우 극심한 슬픔의 과정을 거쳐 안정을 찾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에 따라 여러 가지 양상을 보이고 스트레스성 질병을 동반하기도 한다(Bonanno, Nesse and Wortman, 2004; Maciejewski, Zhang and Block 외, 2007). 또한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한 사회에서는 경제력과 함께 남편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도 함께 상실되기 때문에 사회적 단절이나 새로운 관계 수립에 대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함께 동반하게 된다. 즉, 정신적 충격과 이차적 상실로 인한 사회지지체계에서의 고립, 그리고 사회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여성한부모에 대한 차별된 인식은 불의의 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여성이 홀로 사회에 재적응해야 하는 큰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Marks, 1996; Bonanno, Nesse and Wortman, 2004).

자녀 부양의 의무와 새로운 직업을 구하는 일 등 많은 발달 과업들과 맞물려 있는 젊은 시기에 배우자와 사별하는 여성은 노년기 여성보다 생애 발달 주기 상 극복하기 어려운 스트레스와 이차적 상실에 노출되기 쉬우므로 부정적 결과와 사망률이 높다(김상희, 2005). 사별 여성의 사회 적응을 위한 요소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하나는 사회적 지지의 필요성을 더 강조하는 연구들이고(조희선, 1991; Atchley, 1994), 또 다른 하나는 개인적 자원에 더 큰 의미를 두고 내적 통제와, 자아 존중감 극복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연구들이다(이은경, 2000; 임보래, 2004). 여성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지지 방안으로 사회관계망 연계와 지지 집단 활성화 등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가 제시되었다(Israel, 1982; 최희정 1997; 김혜란, 2006). 한국 사회 속에서 여성들은 한부모가 되는 과정에서 부모, 친척의 물질적 도움이나 정서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데, 이혼이나 사별, 별거 등에 대한 가족의 낙인과 외면, 무관심을 깨닫게 된다(허정은, 2003). 사회적 지지를 위한 자조 집단(self-help group)은 스스로 임파워먼트를 실천 할 수 있는 비공식적인 사회적 지지의 한 유형으로 정서적 원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단지 격려나 지지, 유대감과 소속감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직면한 문제들을 제도적 차원에서 해결하고자 적극적인 사회 통합 노력들을 실천한다(이윤수, 2007).

국가와 사회에서 보훈은 국가공동체의 유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공헌으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이상의 희생적 임무수행 또는 공동체 덕목의 실천을 위하여 행한 자발적인 헌신을 포함한다. 보훈을 책임의 측면에서 보면 국가의 필요 또는 자기 헌신에 의하여 초래된 희생에 대한 국가의 법적, 윤리적

책임의 표현인 동시에 국민 각자의 입장에서는 다른 국민이 자신을 대신하여 희생한 데 대한 보은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 가족의 희생까지 수반한다는 점에서 보상의 권리로 보훈가족을 바라보고 있다(유영옥, 2005; 김종성, 2006). 이러한 보훈제도에 대한 국가의 입장은 현역 직업 군인들과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나가서 군 자체의 사기와도 연관된다. 즉 국가보훈 차원의 지원 정책의 관심과 수준이 낮을수록 직업 군인들의 조직 효과성이 떨어지게 된다(김기봉, 2004). 국가 보훈처와 군 조직적 관점에서는 주로 '보훈'과 관련된 정책 연구[4]의 한 부분으로만 포함시키고 있으며 다양한 관점의 연구는 미비하다.

3. 연구방법 및 과정

1) 연구 방법 및 자료수집 과정

순직군인 배우자의 인생-과정의 경험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현상에 대한 의미와 본질을 찾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의 대표적인 자료수집 방법인 연구자의 개인적 참여(personal commitment)를 통한 심층면접과 자조 집단의 직접적 관찰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자는 순직공군조종사 부인 중 현재 한부모로서 자녀를 다 키우고 성장시켜 사별 후 여성한부모의 경험을 가장 풍부히 가지고 있고 자조 집단에 참여하고 있는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으로 한정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자조 집단에 참여관찰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연구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개별적인 접근 보다 자조 집단에 참여 하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 중 결정적 사례 중심의 층화된 의도적 표집 방법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순간순간에 대한 기술과 느낀 점, 연구 계획과 윤리적 갈등은 관찰참여일지와 일기에 기록하였고, 기록과정에서 뉘앙스, 제스처, 사진과 표정, 기록물, 대화 내용 등 여러 부분에 대한 관찰을 놓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 본 논문에 대한 관심은 1980년대부터 시작되었고, 자료 수집은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나 본격적인 연구 시작과 pilot 연구 시작은 2006년 11월부터 2007년 11월 10일까지였다. 정기적인 모임과 비정기적 모임에서 참여관찰 인원은 30명 내외였으나 심층면담은 9명으로 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 모임과는 별개로 이루어졌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을 미리 작성하여 자조 집단 모임 장소에서 또는 원하는 장소에서 40분에서 70분씩 개인에 따라 2회에서 4회까지 이루어졌다. 심층면접 후의 궁금한 질문은 개방적인 면담으로 자유롭게 이루어졌고, 자료 수집 후에 녹취 과정 중 궁금한 점은 전화면접을 실시하여 연구자가 충분한 이해를 가지도록 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증거물들은 배우자의 사별과 자신의 삶에 대한 기억을 유도해 낼 수 있고, 심층면접만으로 부족할 수 있는 이해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

---

4) 보훈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김일환, 2003), 생활실태에 관한 연구(김미숙 외, 2005; 윤연상, 2005), 군조직의 보훈 정책 인지에 관한 연구(김기봉, 2004), 보훈 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송권면, 2005) 등이 있고 이 연구들은 기존의 문헌 조사와 양적 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2) 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1) 연구자의 선험적 지식과 연구 준비

연구자는 비록 순직 사고 직후에 대한 경험을 함께 겪어 보지는 못했으나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의 삶을 주관적·객관적 입장에서 바라보고,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던 중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에 대한 신문기사[5]를 보았고, 그들의 삶에는 공통적인 부분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그들은 어떻게 홀로 자녀를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고 살아왔던 것일까? 남편의 죽음의 가치와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에 대한 의문은 위기 상황이 늘어나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며, 사회복지와 군 조직에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그러나 '군 조직', '죽음'과 관련된 주제이기 때문에 관련 집단과의 접촉은 쉬운 일이 아니었고 많은 좌절도 겪어야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극히 주관적인 생활의 일부분들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그 의미를 구분하고 논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함께 연구에 대한 계획과 준비가 1년 넘게 소요되었다. 연구자는 어린 시절부터 현재까지 공군과 관련된 자료 수집 및 행사 참여를 해 왔다. 이러한 경험은 연구 참여자들과 내부자적 공감을 할 수 있는 신뢰 형성을 높였고, 집단의 문화와 분위기, 전문 용어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2) 연구 참여자 선정 배경과 일반 사항

'○○회'는 자조모임 성격으로 한 달에 한번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참여자들은 40대 후반에서 7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를 보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여성한부모의 경험을 포함하기 때문에 남편의 순직 당시부터 자녀를 양육해왔으며 현재는 자녀가 성인으로 독립하여 주제에 맞는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연구 참여자를 선정 했다. 연구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특성은 소수집단의 비밀 보장을 지키기 위해 개별화 시키지 않고 포괄적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조사 시점 나이는 50대 초반부터 70대 초반까지로 나타났고, 9명의 연구 참여자 중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남편의 순직 사고 당시 발생년도는 1960년대 말에서 1980년대 초반이었고, 사고 당시 자녀들 나이는 첫째 자녀 기준으로 임신 2개월부터 12세 사이였다. 사고 당시 연구 참여자의 연령은 27세부터 36세 사이로 나타났고 결혼 생활 당시는 모두 직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 결혼 전 직장 생활을 했던 연구 참여자는 남편의 업무 특수성과 환경적 여건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어야 했던 경험을 이야기 했다.

---

5) '순직 공군조종사 부인들은 재혼 거의 안해요. 왜냐고요? 지구 어딘가 살아있을 것 같으니까...' 순직한 공군조종사 부인들에 대한 이야기다(조선일보, 2006. 6. 26).

3) 자료 분석 방법과 연구의 엄격성

연구 참여자들은 관사 생활을 했던 공통된 경험을 가지고 있고 평소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일부 개별사항으로도 누구인지 노출될 위험이 있었다. 이에 따라 개인 비밀 보호나 자연스런 현상학적 연구가 어려울 것이라 예상되었다. 이런 연구 상황을 고려하여 Colaizzi 분석 방법을 활용하였다(Colaizzi, 1978). 네 번의 추림 과정을 거쳐 의미를 간략히 하고 공통적 의미를 묶어 분석을 마칠 수 있었다. 이론 다각검증(theory triangulation)에 대한 노력으로는 순직군인 배우자를 이해하기 위해 보훈처와 군 조직에서 보는 관점과 페미니스트 이론을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 사회복지실천 분야의 개입을 함께 접근시켜 보았다. 자료 다각검증(data triangulation)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다각적 관점의 이해관계자들과의 면접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의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소수집단의 민감성을 이해하고 군사 보안의 제한성을 보완하기 위해 군과 여성한부모 관련 전문서적과 에세이, 논문 등을 참고하여 역사적 진실에 대한 진술 확보에 노력하였다. 또한 본 연구를 수행하는 동안 질적 연구 방법과 논문에 대한 스터디를 하면서 윤리적 갈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4) 윤리적 갈등과 참여관찰

연구자는 본격적인 자료 수집을 하기에 앞서 연구 참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윤리적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랑하는 배우자와의 사별은 깨끗하게 지워지거나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었다. 아픈 기억을 다시 되새기게 하는 것이 과연 도리(道理)에 맞는 일인가? 연구자의 일방적인 정치성(politics)을 가진 권력 행사가 아닌가? 내부자적 관점과 외부자적 관점의 중립을 지킬 수 있을까? 등의 여러 고민이 계속 되었다. Pilot 연구를 시행하면서 연구 참여자에게 자세한 연구 목적과 진행상황을 이야기하였으며, 연구 참여를 스스로 원하는 상황에서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렸다. 조사 기간 중인 7월 20일에 야간훈련으로 KF-16 전투기 조종사가 순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순직 조종사 중 한명은 바로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의 아들이었기에 남편과 아들을 같은 사고로 잃게 된 회원을 보면서 연구자[6]와 연구 참여자들은 가슴 쓰라린 경험을 또 다시 겪어야 했다. 심층면접에 응해준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마음을 담은 선물을 드렸지만 그 어떤 값을 치룰 수 없는 소중한 이야기들이기에 연구자 입장에서 논문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 특히 연구 주제와 관련된 사항은 다각적 입장과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회복지적 함의와 국가와 군 조직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생각을 해야 했다. 이 부분에서는 개인의 사생활과 군사적으로 민감한 부분의 경계를 주관적으로 고려해야 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수정 보완을 하였다. 공군

6) 순직 사고 8개월 전 ○대위와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대위는 기본 훈련과정을 마치고 자신이 타고 싶던 KF-16을 조종하러 간다고 말했었다. 7월 21일. " '순직'의 의미... 가족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그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더욱 객관적인 논증을 하기 위해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연구자의 일기 중)

조종사가 가장 많은 비행 훈련을 하는 시기는 순직 발생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가장 많은 비행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 대위에서 중령 사이의 계급에 사고 발생이 집중되어 있다. 이러한 임무수행 특성상 비행 중 불의의 사고가 일어나게 되면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은 일반적인 사회적 기대연령 보다 일찍 사별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사고 당시의 부인과 자녀들의 나이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런 공통점은 평균적인 사회적 기대보다 일찍 사별을 경험하고 어린 자녀와 함께 한부모의 삶을 시작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4. 분석결과

1) 배우자 순직에 대한 부정(否定)과 비탄(悲嘆)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의 죽음을 처음 접하게 되면서 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고 그 순간의 심정은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다. 바로 몇 시간 전 근무를 하러 나간 남편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현실이 꿈만 같았다.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를 겪게 된 연구 참여자들은 정신적 충격과 함께 남편에 대한 환상과 환청을 경험했다. 특히 군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함께 했기 때문에 일반적 사별보다 죽음을 수용하는데 힘든 상황이었고, 달라지지 않은 주변의 일상에서 본인만이 겪어야 하는 갑작스런 변화는 환상과 환청 등 심리적인 고통을 더 심화시켰다.

(1) 믿을 수 없는 현실 속에서의 혼란

"그냥 하늘이 무너지는거 같죠. 뭐(허탈한 웃음). 직접 보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가 않지요..." (참여자 1) "5년까지는 남편이 꼭 돌아올 것 같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참여자 2) "조종사들 떠나보낼 때...배우자가 직접 못 봐요...그래서 아마 그런 현실 다가오지 않는 것 하고...'이건 사실이 아니다'하고 거부하는 감정하고 거의 맞아 떨어져...어디 꿈속에서 산다고 할까요?"(참여자 3) "저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고인이 아기를 굉장히 기다렸거든요... 그날 확인하러 같이 가자고 하고 나갔는데... 죽지 않았을 것이다.... 내 눈으로 안 봤으니까... 어디 다른 나라에라도 잡혀 있으면 희망이라도 갖고 살텐데...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죠."(참여자 5)

(2) 사별의 경험과 수용

"기절해서 눈을 뜨니 온 가족들 울고 난리예요... 지칠대로 지쳐가지고 뭐 울지도 못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죠. 어찌 되었는지 삼우제날 새벽에 꿈도 아니고 너무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건지도 모르겠는데 현관 앞에서 조종복을 입고 정말 피눈물 같은 걸 흘리면서...'행복하게 해 준다는 약속 못 지키고 이렇게 떠나게 되어 정말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울더라구요(울먹이다 결국 울면서 이야기)... 결국 죽음을 받아들였죠"(참여자 5)

(3) 배우자(남편) 상실 이후 충격의 여파

"몇 년 동안은 어떻게 하면 나도 따라갈까. 그 생각밖에 안했지...환청 등 후유증은 당연하죠...십년 후에 내가 뒤 돌아보니까 아 그때 나의 모든 생각이 내가 아니었다..."(참여자 1) "...물질적 충격은 꿈이 있고 다시 일어서면 되겠다는 의지를 가지면 되잖아. 그런데 남편 떠났을 때는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나와서도 공군복만 입고 가는 거 보면 정말 보기 싫어서... "(참여자 2) "...비행기 소리 나고 조종복 입은 사람 왔다 갔다 하니까...조종사들 퇴근할 때 내 남편도 거기서(눈물 글썽이며)걸어오던 환상을 보면서 오는 듯 착각하고..."(참여자 5)

2) 배우자(남편)의 임무 수행에 대한 양가감정

연구 참여자는 평소에 배우자가 '대한민국 조종사'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말 힘든 훈련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연구 참여자 또한 배우자의 직무 특성에 따른 어려움을 함께 감수해야 했다. 군 조직(관사) 안에서의 생활로 사회와 분리된 특수한 문화에 적응해야 했고, 전시 상황과 같은 비행 훈련으로 항상 심리적인 불안을 가지고 생활해야 했다. 이러한 생활은 순직과 관련하여 '충성심에 대한 가치와 자긍심'을 가지면서도 유가족 입장에서는 '소용없는 죽음'으로 느껴지는 양가감정을 갖게 하였다. 고인이 생전에 착용했던 빨간마후라[7]와 여러 유품은 배우자의 죽음에 대한 정당성과 의미부여에 큰 도움이 되었다.

(1) 공군조종사 임무에 대한 배우자의 열정과 긍지

"정말 순수한 직업을 가졌고, 그 직업을 가진 것에 대해 돌아가신 고인 자신도 늘(강조)자랑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대한민국 조종사다' 그래가면서..."(참여자 1) "비행기가 좋다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참여자 2) "전투기에서 소리가 난다고 연락 오니까 자기가 타보고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참여자 6)

(2) 배우자(남편)의 특수한 직무에 따른 일상(日常)

"...외부 통제가 한참 심할 때였고 '창살 없는 감옥'처럼 지내야 했죠."(참여자 3) "꿈이 좋지 않다던지, 아침에 그릇이 깨진다던지 하면 하루 종일 불안하고, 예민한 사항들이 있었죠. 조종사 부인이면 누구나 그랬을꺼예요...[8]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웃음)... 훈련기, 전투기 소리가 시끄럽다지만 그 소리가

---

7) 1951년 추락한 비행기 조종사의 수색과 구조(SAR)에 대해 상의하던 중 눈에 잘 띄는 빨간 마후라를 착용하도록 하여 격추된 파일럿의 80~85%가 구조되었다. 빨간 마후라는 '살아남을 수 있는 최후의 길'이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었고, 우리나라 전투기 조종사의 명예와 긍지를 나타내는 표상이 되었다(월간조선사, 2002). 정식으로 '빨간 마후라'를 착용하게 되는 의식은 기본과정을 거쳐 고등 비행교육훈련을 모두 마친 후, 수료식에서 공군참모총장이 신임 조종사 한명 한명의 목에 직접 '빨간 마후라'를 매어주는 것이 전통으로 되어 있다. 이 의식은 조국 수호를 위해 목숨을 바친 선배 조종사들의 영원불멸한 담심을 후배 조종사들에게 전해 주는 것으로,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는 것은 조국의 영공 수호에 목숨을 바쳐 충성을 다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www.airforce.mil.kr. '알기 쉬운 공군 중 빨간 마후라 길라잡이').

나지 않으면 불안하죠. 사고 나면 모든 비행훈련 다 중지시키니까. 오히려 조용하면...누군가 사고가 났을 수도 있다는...야간 작전이나 비행 때는 특히 더 가슴 졸이고, 잠을 못 이루죠"(참여자 5) "항상 빨래하고 빨랫줄에 널 때 남편 옷이라든가 조종복이라든가 빨간 마후라를 집을 때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고 항상 한쪽 팔에다 끼고 빨래집게를 집었어. 항상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항상 남편이 몇 시에 비행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 시간에 하늘을 보고 있었어요."(참여자 6)

(3) 국가를 위한 죽음이지만 원통함

"...국가를 위해 청춘을 불사르면서... 전시 때와 마찬가지로 조종복이 소금이 허옇게 생길 정도로 타고 긍지를 가지고 모든 것 걸었는데..."(참여자 2) "훈련 중에 조종사가 공중에서 돌아가셨다는 데는 긍지를 가지고 있지만...억울하게 순직했다는 생각이 드니까..."(참여자 5) "...최종 테스트 자기가 꼭 해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그때만 해도 군 정비들이 열악한 상태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까운 인재들이 많이 돌아가셨어요"(참여자 6) "...영공에 있어서 허무하게 떠나보내는구나...그래도 지상에 있으면 어떻게 고치고 할텐데..."(참여자 7)

3) 불가항력적인 운명에 대한 인정(認定)과 고군분투

불가항력적인 운명을 받아들이는 시간은 개인마다 달랐지만 연구 참여자들은 남편의 순직을 인정하는 단계에서 지금까지 살아온 삶과는 다른 인생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인식했다. 갑작스럽게 군 조직에서 일상생활로 분리된 상황과 배우자의 순직으로 인한 지위와 역할의 상실에 대한 심정, 자녀와 함께 살아가기 위한 고군분투 속에서의 정체성과 자존심 상실 등에 관한 경험을 구체적인 묘사와 비유로 나타내었다.

(1) 군(軍) 조직으로부터 갑작스런 분리

"갑자기 우주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 바다에 내 던져진 종이배 같은 느낌"(참여자 1) "나만 쫓겨 나와서 이렇게 고생한다는 그런 상실감 때문에... 누가 한부모 모임이나 정신과 치료 등을 가르쳐 준다고 해도 거부감 있었을꺼예요. 만나고 싶지도 않고"(참여자 3) "...떨어져 나간 거. 남편이 없어지면서...완전 별개가 된 거야 "(참여자 6) "...정말 남편의 존재가 공군에서 떠나가는구나..."(참여자 8)

(2) 사회 재적응을 위해 예전의 나를 버림

"...바로 사회에 나왔을 때는 적응이야 하지만 다르죠. 분위기도 다르고...(참여자 1) "... 사회 생활하면서 무시 받고 정말 많이 울었죠... 죽고 싶었을 때 '...내가 마지막 남은 엄마 하난데... 죽고 나면 자

8) 개별적인 징크스와 금기시 되는 상황에 예민했던 공군조종사 부인들의 일상을 이야기 해 주었다. Milgram과 Bar(1993)는 군인 배우자는 군인인 남편의 위험한 임무와 부재중에 이차적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고, 임무의 위험성에 디스트레스(distress)를 계속 받는다고 설명하였다. 즉 국가 존립을 위한 군의 임무수행은 군인 가족 모두가 희생을 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위험한 임무 수행을 해야 하는 군인 배우자는 부상과 죽음에 대한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 된다.

식들은 뭐가 될까. 난 이전의 내가 아니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참여자 2)

(3) 이중적 역할 책임과 그리움

"힘든 것, 무슨 일이든지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참여자 1) "내가 손댈 수 없는 것 있을 때, 결혼 시킬 때 아버지 손잡고 가야 할 때..."(참여자 5) "...속속들이 마음 주고 상의 할 사람 없으니까.., 아버지에 대해 조사할 때..."(참여자 8) "아이들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고 중간 중간 기간, 그때... 사춘기 때 힘들었죠."(참여자 9)

4)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의 비애(悲哀)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갑자기 한부모가 된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 전반의 여성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 당황함을 겪어야 했다.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초까지 사회구조적 관점에서의 결손 가족이라는 일반적 낙인과 함께 국가 보훈정책에 있어서 역사적 인식과 국가 정책, 사회적 분위기가 합쳐져 '원호가족'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다. 지금의 '보훈'과 과거의 '원호' 사이에는 연구 참여자들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남모르는 고통이 함께 녹아있었다. 사별 후 가장 중요한 사회 지지체계는 실질적인 지지를 해 주지 못했고, 오히려 타인을 회피하도록 하였다. 남편이 없다는 것에 대한 불신, 사별에 대한 동정심, 불행한 여자라는 인식, 가부장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남자 없이 사는 여자'에 대한 무시와 '쉽게' 생각하는 편견을 느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소외와 고립을 포괄하는 주변성(marginality)이라는 여성주의적 해석이 포함된다.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자녀의 상처받음과 사회를 비롯한 군 조직과 남성이 규정하는 '미망인' 에 대한 보이지 않은 규정과 제약은 본인에 자신이 만든 상황은 아니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고 자신들만의 대처 방법으로 이겨나갈 수밖에 없었다.

(1) 여성한부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편견에 맞섬

"스스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당당하게 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딴 사람들은 기피해야할 인물... 편견을 가질 수밖에 없음을 내가 받아들여야지 나 같아도 그랬을 테니까 하지만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일이었잖아요... 그냥 편견들 별로 의식 안했어요.(참여자 1) "...혀를 차면서 안됐다는 눈으로... 쑥덕쑥덕 거리고, 혼자 젊은 나이에 청상 과부로 안됐다... 사람들 많이 모이는 곳도 싫었고..."(참여자 5)

(2) 시대적 흐름 속에서 보훈에 대한 국가사회적 맥락의 이중성

"... 선생님들도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고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많았어요. 학교에서도 차별화하려고 해서 속상했죠... 개인에 대한 배려는 없었어요... 차별적인 행정절차가 그대로 시행되었지... 다 드러나게...."(참여자 5) "원호가족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개인에 대한 배려가 너무 없어가지고, 현충일 같은 때 그렇게 해 주는 것 아이들이 너무나 자존심 상하고...너무 싫었고, 국가가 우리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상처를 주는 거였죠..."(참여자 9)

5) 자녀 양육을 위한 필사적인 사명감

당시 보훈 정책과 행정 절차는 순직 유가족의 자긍심을 높이지 못하고 '결손가족', '비정상 가족' 등의 사회의 선입견에 낙인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가져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자녀로 인해 삶의 원동력을 가지고 살아왔고, 이에 따라 자녀 양육에 많은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상처 받지 않도록 노력했고, 자녀에게 아버지 존재에 대한 긍지를 심어주기도 하였다. 이런 노력은 아버지의 죽음을 떳떳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당성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되었고, 그 결과 자녀 대부분이 아버지에 대해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모든 생활을 잘 헤쳐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을 가진 적절한 대처는 자녀의 정상적 발달과 높은 적응 수준을 가져오는데 많은 영향을 주었다.

(1) 성장기 자녀가 사회로부터 상처받지 않게 노력함

"애들한테 처음 속였어... 각서 하나 써놓고, 정말 나쁜 짓 안할 테니까 아빠 살아 있는 주민등록증 하나 떼 달라고... 학교에서 아버지 있는 것처럼 회비 다 내고 다녔어. 동장도 울더라고... 국립묘지도 처음에 안 데려 갔지. 기죽는다고."(참여자 4) "말 배우면서 '아빠'라는 말을 하는데 형부보고 아빠라고...가슴이 찡하면서 다 울었죠... 학교 들어가면서 뭐 하나 기죽지 않게 신경 썼죠. 얼른 찾아가 티 안 나게 해 달라고, 아빠 없는 사람 손들라든지, 증서 나눠 준다던지 할까봐..."(참여자 5) "학비를 계속 냈어요. 사기 안 죽이려고... 6월 되면 호국보훈의 달이라고 해서 보훈자녀들에게 노트나 연필 주는데 조회 때 이름 불러 주었다는 거예요... "(참여자 6)

(2)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자녀의 자긍심

"... 훌륭하게 생각하고... 떳떳하게 이야기 하는 것 같고... 비행기 탄다고 공군사관학교 간다고 해서... 엄마 인연 끊고 가라고...(참여자 2)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파일럿 될 꺼라고... 아버지가 다하지 못한 임무와 꿈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끝까지 살아남아 엄마... 파란 영공 지키겠다고... "(참여자 5) "스스로 위로를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죠... 상처 되새기게 될까봐 어렸을 때 순직과 관련해서 말을 안 했어요... 아무 거리낌 없이 '나는 유공자 자녀다. 공군 조종사 자녀다'라고 떳떳하게 긍지 가질 수 있는 장치가 없잖아요... 대외적으로 당당할 수 있는..."(참여자 9)

6) 자신의 존재 위기에 대한 도전

갑작스런 배우자와의 사별로 기존의 일상생활은 연구 참여자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모든 일에 대해 혼자 책임지게 되었으며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 내적·외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져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홀로 사회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는 현실에 대한 두려움과 재적응을 위한 고민으로 의지할 곳이 필요함을 느끼기도 했다. 이런 어려움에서 삶의 원동력이 되었던 자녀는 삶의 희망이었고, 살고자 하는 의욕을 만들어낸 가장 큰 힘이자 의지할 수 있는 자신의 전부였다. 30년이 넘게 간직해 온 유족연금증서는 연금으로 생활할 수 없었던 상황과 '남편의 순직에 대한 가치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는지'에 대한 한탄으로 나타났다. 연금 증서는 남편의 순직과 맞바꾼 '현실'이었고, '자녀와 생존하기 위해서는 사회에 빨리 적응해서 열심히 뛰어야 한다'는 본인에게는 매우 충격적이고 현실적인 증거물이 되었다. 배우자의 죽음으로 정신적 충격의 고통이 컸으나 사회에 적응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연구 참여자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였다. 사회역사적 맥락 속에서 자신 밖에 믿을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길들여지고,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레질리언스의 보호 요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1)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환경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 늘 아빠가 없다는 것이지...연금 가지고 절대 생활 못하는 것은..."(참여자 1) "직장생활하고 모든 걸 내가 책임지고...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참여자 2) "...씩씩하게 이 세상에 여자 혼자 아기 데리고 살아가야 하니까 변했죠. 시댁, 친정 가서 일부러 더 밝은 척 웃고, 말도 많이 하고...내 눈치 볼까봐서... 모든 것 완벽하게 하고, 동정적인 모습 안 보이려고... "(참여자 5)

(2) 홀로 사회에 던져진 현실의 두려움

"갑자기 우주로 떨어져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지. 바다에 내 던져진 종이배 같은 느낌..."(참여자 1) "온실에서 갑자기 밖으로 내놔진 그런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여길 헤치고 나가서 애를 키우고 사나..."(참여자 3) "혼자되니까 막막하더라고...아무것도 모르고 남편과 살다가... 가정 일만 알다가...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강변에 혼자 띄어진 것 같고..."(참여자 8)

7)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으로서 내재된 신념체계

연구 참여자들의 긍정적인 가치관, 배우자의 순직에 대한 평가, 재혼에 대한 관점은 여성한부모로 살아오면서 삶의 태도와 신념 체계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배우자(남편)의 순직으로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으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은 항상 내재되어 있었다. 남편의 희생이 있기에 조국이 건재(健在)하다고 위안을 갖는 자긍심은 삶의 신념 체계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자신의 임무에 충실했던 배우자가 순직과 동시에 군 조직에서 잊혀져가는 것에 대해 많은 미련과 안타까움을 가졌다. 이는 곧 남편의 임무수행과 순직, 군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자신의 정체성이 모두 함께 연관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순직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과 평가, 어떤 이유와 원인으로 순직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의미 부여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다시 살아가고자 하는 레질리언스의 중요한 보호 요소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우자(남편) 순직 이전의 연구 참여자 성격과 순직 이후 세월 속에서 터득한 긍정적인 가치관은 연구 참여자의 신념체계를 확고하게 해 주었으며 현재까지 열심히 살아오게 만든 요인이 되었다. 배우자에 대한 추억과 사랑, 순직에 대한 의미, 생존을 위한 고군분투, 재혼과 관련된 자녀들의 상처, 자녀에 대한 책임감 등 여러 요인으로 재혼을 하지 않고 살아왔음을 알 수 있다. 어떠한 요인에 의해서건 현재까지 여성한부모로 살아온 것은 사회역사적 맥락에서 살펴볼 때 연구 참여자 개인에게 부여된 '책임감'과 '희생'이 전제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 연구 참여자는 재혼을 하면 연금 수급권을 박탈하는 현 정책에서 재혼 생활이 실패했을 경우 구제방안이 필요하

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1) 배우자의 순직에 대한 평가와 가치

"자부심 가지고 있죠... 국가를 위해서 정말 떳떳하게 순수하게 오직 일념 하나로 살다가..."(참여자 1) "자랑스럽지, 공군사관학교 ○등으로 졸업했어. 아깝지... 나라를 위해 손실이 크지"(참여자 4) "뭔가 남아(男兒) 같고, 하늘에 뜬다는 것이... 표현 못해. 하늘에서 조종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야"(참여자 8)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었죠. 알게 모르게 공군이라는 끄나풀이 있었어. 그것 때문에 지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지 몰라. 나라나 공군에서는 아무 관심이 없는데...공군이 있다는 게 의지가 되었고... 과거를 떨쳐내지 못하는 미련인 것 같아요."(참여자 9)

(2) 살아오면서 힘이 되어준 긍정적 가치관

"...큰 후회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많은 것 주셨어요. 건강한 아이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감사할 뿐..."(참여자 3) "...열심히 살아야 다른 조종사들이 맘 놓고 비행을 하지... 씩씩하게 열심히 살았어. 애들도 자연히 따라오게 되어..."(참여자 4) "씩씩하게...내가 손해 보더라도 남에게 더 주는 삶을 살았지...책임감과 약속은 꼭 지키는 것, 신뢰, 정직함을...바르게 살아 온 거죠."(참여자 5)

(3) 재혼을 하지 않았던 개인적 사유

"남편을 사랑했고, 솔직히 남편 같은 사람 볼 수 없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1년, 2년 가고 금방금방...'꼭 정절을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이 아니고, 살다보니 이렇게 된 거예요(참여자 2) "...자식까지 놔두고 가면 혼자 발 뻗고 살 수도 없는 거고, 괄시 받고, 기죽일까봐 그런 생각 못 했어요..."(참여자 5) "아이들과 생활하는데 급급해서 그런 생각은 들지도 않았고 또 참고 사는 게 미덕인줄 알았지 그 당시만도..."(참여자 8) "... 재혼 하고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실패한 사람들은 연금 못 받고...생활에 여유가 없는 분들은 정말 안됐다..."(참여자 9)

(4) 사별 후 생활의 원동력

"부모님께서 너무 수심에 잠겨서... 못 사실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내가 열심히 살다보니까 잘 살았던 것 같고..."(참여자 4) "뱃속의 아기였어요. 힘을 가지고 여태까지 살아온 것은... 고인이 아기를 너무 기다려서 따라 죽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정말 귀한 존재로 생각하고... 더 의욕 가지고 정말 훌륭히 키우려면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참여자 5) "정말 사회를 몰랐고, 사회가 무서웠던 내가 살 수 있었던 건 아버지 없는 자식 제대로 키워 보겠다는 전념에... 어려울 때 누구한테 의지할(침묵, 울음)...자식 없으면 그렇게 굳세게 살았겠어?"(참여자 8)

8) 외부체계에서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

순직공군조종사 부인들은 자조 집단을 통해 자신들에게 무관심한 국가와 군 조직이 자신들을 의식해 주기를 바라면서 동병상련의 아픔을 함께 나누었다. 사회와는 달랐던 군에서의 생활을 공감할 수

있고, 위로와 지지가 되어 왔다는 점이 가장 큰 의미로 나타났다. 개인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고, 의지할 곳이 없었던 시절 자조집단이 만들어졌다. 자조집단 참여는 '조종사 부인', '공군 가족'이라는 정체성을 확고하게 해 주었고,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힘이 되어 주는 사회적 지지 체계가 되었다.

(1) 의식화를 위한 힘 기르기

"의식하기를 바라는 거죠. 처음엔 바다에 던져진 종이배 같았다니까...모임이 있으면 그래도 자그만하지만 덩어리잖아요...우리가 있다는 존재를 공군에 자꾸 알렸던 거지..."(참여자 1) "...크게 위로를 얻는 것 보다는 뭐, 그런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그들 마음속에 있는 '공군'이라는 그걸 잊지 못하는 것 같아요."(참여자 9)

(2) 옛 경험 공유(共有)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함

"같은 상처를 가진 사람으로서 다 같이 남편 없는 사람들, 같이 비행기 타던 사람들, 관사 생활 하던 젊은 시절 새댁 때 함께 했던, 같은 시절 보낸 사람들 같은 이야기하고..."(참여자 2) "선배님들 살아가시는 모습, 뒤지지 않는 모습이 멋지고 좋더라구요... 위안과 지지, 동병상련 느끼고, 그 시절로 되돌아 간 것 같은 느낌 들고"(참여자 3) "...우리 조종사들 생활은 다르잖아. 남편들이 있을 때 그 분위기가 있잖아. 우리끼리 모이면 옛날 생각나서 이야기도 하고"(참여자 8) "...어디에서도 우리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모임에 나옴으로써 뭔가 옛날 우리 생각 떠올리면서 '나는 조종사 부인'이다. '공군 가족이다'라는 정체성을 확인하는..."(참여자 9)

9) 존재성 재확인을 위한 바람

조종사 순직 사고는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고 사고가 있을 때마다 연구 참여자들은 옛 기억으로 괴로워했다. 순직 조종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과 남은 가족들을 보면서 자신의 과거 상황을 떠올렸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국가 존립을 위해 조직된 군대에서 전사하거나 순직한 군인에 대한 보상은 대부분 물질적 책임 범위 안에서만 이루어져 왔다. 국가 정책 뿐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도 물질적 차원에서의 도움과 동정만이 사회복지 실천 서비스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라는 보편적인 인식이 형성되어 왔다. 연구 참여자들은 삶을 되돌아보면서 순직유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물질적 보상뿐 아니라 포괄적인 정서적 지원이 함께 통합되어야 한다는 제언을 하였다. 또한 국가와 사회가 군과 보훈에 얼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군 조직에 대한 사기를 얼만큼 높여주는지의 여부는 순직군인 부인으로서 힘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정체성 확립과 명예와 관련된 자긍심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1) 동일(同一)한 순직사고의 아픔과 경험에서 비롯된 제언

"...이번에 난 사고... 남편은 산에 묻고, 아들은 가슴에 묻고... 손톱, 머리카락, 모자하고... 못 찾는 조종사들 많아요... 처음엔 '○○회'도 없었고, 위로가 된다든지 그런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큰 쇼크, 자식들 데리고 힘들게 사느라고, 자신의 몸 건사할 겨를도 없이 산거죠... 겉은 멀쩡해보여도 속은 썩을

데로 다 썪었다고...(참여자 2) "한부모 가족 모임들 있다고...안다고 해도 못 나갔을꺼예요. 너무나 사는 게 바빠가지고... "(참여자 3) "순직 당시에는 사실 정신적 위로 필요 없고 소용없죠. 그 당시는 사람 기피증이 있어 ..."(참여자 5) "단시일 내에 베푸는 의미 보다는 장기적으로... 관심 가지고 중간에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알아서 도와주는 서비스가 있었으면..."(참여자 6) "국가에서는 사고 나면 그 당시뿐... 보훈처에서는 상이용사 위주죠. 하지만 살아 있잖아요... 상담할 수 있는 창구가 제도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참여자 9)

(2) 국가와 사회의 영향을 받는 신념

"국민과 국가가 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군사기를 높여주느냐에 따라 달라지죠...그런 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요. 정책이나 서비스를 이야기하기 전에..."(참여자 1) "...연금 주는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도 관심 없죠. 죽은 순직자와 그 가족의 명예 유지에 대해서..."(참여자 9)

10) 배우자 순직에 따른 삶의 의미부여

연구 참여자들은 배우자에 대한 사랑과 그 결실인 자식에 대한 숙명적 본분을 책임지려 했다. 순직공군조종사의 사진과 빛바랜 공책은 순직에 대한 의미부여에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의미부여로 다른 사람들의 평가 여부를 떠나 본인 스스로 당당함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올 수 있었다. 이러한 삶의 의미와 본질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동정을 받거나 불행한 여자, 사회의 낙오자라는 인식을 받지 않고 순직한 남편의 긍지를 지키고, 자신 또한 독립된 존재로서 인정받고자 하는 오기(傲氣)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들은 과거 공군조종사 아내로서 남편이 임무수행을 무사히 할 수 있도록 일상에서 모든 상황을 배려해야 하는 특수한 상황을 겪어왔다. 이러한 역사성은 공군조종사 뿐 아니라 그의 아내였던 자신도 군 조직을 위해 충성을 다한 당당한 조직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자신의 군 조직에 대한 공헌에 대한 의미부여는 남편의 명예와 함께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더욱 높여 주었으며, 국가와 순직한 남편을 위해 주어진 본분을 다 하겠다는 의지를 부여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해석되었다.

(1) 배우자에 대한 사랑으로 인한 숙명적 본분(本分)

"조종사들은 밖에 생활 못하고 비상대기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정적이고 애처가들이고..."(참여자 2) "짧은 기간이었지만 살아 있는 동안 행복했어요. 고인이 그렇게 기다리고 애태우던 자식을 버릴 수도 없었고, 최선을 다해 사랑을 주고 키우는 것이 내 책임이고 본분이라 생각했죠. 영결식 날 마음속으로 약속을 했죠. 당신이 그렇게 기다리던 자식. 잘 키우겠다고... 스스로의 약속을 지킨 거죠."(참여자 5) "...혼자 사는 사람들을 그렇게 좋은 눈으로 바라봐 주지만은 않았어요.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했던 남편을 위해서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자식들을 잘 길러 주는 것. 책임가지는 거...혼자 산 것에 대해 후회는 안 해요... 내 행동의 제약을 이걸로(남편의 반지 낀 것 보여주면서)... 그러고 살았어"(참여자 6) "대통령상으로 받은 시계...(한참 말 끊다가) 시계는 가더라고... 사람은 갔는데...(먼 곳 응시하면서) 그때 그 시계 소리 들으면서 그 심정은 말로다 못하지... "(참여자 8)

(2) 내재된 자신만의 당당함

"일반인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 공군조종사였고, 우린 이렇게 살았다. 혼자 생각하면서 자부심 가지고... 조종사 미망인들이었기 때문에... 아직도 꼿꼿하지 않나 싶은... 자존심도 세고..."(참여자 1) "...자존심과 프라이드 가지고 있죠. 조종사 부인들은 자신의 남편에 대한 명예와 긍지를 함께 지니기 때문에..."(참여자 5)

(3) 불행한 낙오자로 동정 받지 않으려는 오기(傲氣)

"...남들이 보면 웃을지 모르는 그 프라이드를 지키겠다고 남한테 지지 않겠다고 남한테 꿀리지 않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온 것 같아요."(참여자 3) "...나는 이를 악물고 살았어...힘은 없지만...나는 50 밖에 안 되지만 100이 되도록 살고 있어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참여자 4) "...남들에게 기죽지 않게... 나도 당당하게... 남한테 더 주면 더 주었지, 사회에 뒤떨어지지 않게 열심히 산거예요"(참여자 5)

5. 경험의 본질과 논의

1) 연구 결과에 나타난 경험의 본질

순직공군조종사 부인에게 '순직'은 배우자와 사별 이후의 삶에 족쇄가 되기도 하고,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자신만의 자부심과 당당함이 될 수 있었다. 배우자 순직 당시[9] 남편을 내조하면서 살았던 그들은 하루아침에 시대적 상황과 사회적 인식, 국가 정책 등과 어우러져 '여성한부모'와 '순직 유가족'이라는 재명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호국보훈'을 강조하면서도 유가족의 명예와 긍지는 배려하지 않는 사회역사적인 '이중적인 분위기'의 맥락을 이겨내야 했다. 그들은 홀로 세상에 부딪혔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자신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기'로 살아왔다. 그들은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남편 그늘에 가려진 미망인이 아닌 당당한 순직공군조종사 배우자로서 자조 집단을 만들었다. 자조 집단에 참여하면서 추억을 회상하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이어져 온 자신의 정체성을 되찾는데 큰 영향을 주었다. 그들은 순직 배우자가 목숨을 바칠 정도로 충성했던, 그리고 과거 공군조종사 부인으로서 소속되었던 군 조직과 국가가 과거의 순직군인과 그의 배우자를 기억하고 '의식(意識 consciousness)'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러한 '의식'은 순직군인 배우자 정체성의 근본이며, 남편의 순직에 대한 가치와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과거의 아픈 역사가 현재까지 이어져 오면서 상실에 대한 슬픔은 여전히 고통으로 남게 된다. 그들은 신체적·정신적 아픔과 더불어 자아 성숙의 기회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가치 평가와 과거의 역사성은 살아오는 동안 여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신

9) 1960년대 말에서 1980년 초까지 상황은 이념적 대립이 극심한 시기였고, 그만큼 군의 통제가 심했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 또한 현재 보다 낮았으며 여성한부모에 대한 사회의 편견과 가부장적 사회구조로 인해 여성 혼자 생계를 책임지는데 사회적으로 힘든 여건이었다. 즉, 남편이 없다는 것은 존재의 위기와 정체성의 혼란을 함께 나타내 주는 것과 같았다.

적 신념이 되었으며, 현재까지 그들의 존재 의미를 재구성(reframing)하고 있다. 레질리언스는 삶의 도전들을 극복하는 능력으로 정신적 외상(trauma)과 역경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데 유용한 개념이다. 즉 자신의 역사와 함께 '대한민국 공군조종사 부인', '공군 가족'이었다는 자신의 존재 의미와 정체성은 남편의 순직에 대한 '의미부여'와 함께 레질리언스 보호요인 중 '신념체계'에 큰 영향을 주었고, 다시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정신적인 힘을 부여하였다.

2) 논의

연구 결과 '임무 수행 중의 순직'은 극심한 상실감으로 삶의 의욕을 잃은 유족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각인시켜 주는 매개가 되었다. 갑작스런 배우자의 순직은 유가족에게 미해결된 애도와 사고 예방을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으로 나타났다. 순직군인 배우자들은 군 조직 안에서 생활을 해왔으며, 위험한 임무 수행에 있어서 정신적 스트레스를 함께 받아왔다. 이러한 일상생활에 대한 기억은 남편의 임무 수행에 대한 자부심을 강화시켰고, 군 조직에 대한 소속의 의미를 계속 부여하였다. 순직군인 배우자는 갑작스런 사고로 인한 충격과 동시에 조직에서 분리되는 '주변성'에 대한 소외 과정을 느끼며 사회 재적응에 대한 도전이 시작되었다. 순직군인 배우자는 군 조직에 대한 소속감을 오래도록 간직하고 있으며 배우자의 순직에 대한 의미와 명예, 군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자신의 긍정적인 신념 체계로 형성시켜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가와 사회에서는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른 여성한부모에 대한 낙인과 편견 속에서 '보훈 가족에 대한 형식적인 보상과 상징적 예우'만을 일관해 왔기 때문에 유가족을 통합적으로 보호하지 못했다. 군 조직에서도 유가족에게 지속적인 소속감을 부여하는 노력이 미흡하여 충분한 포용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순직 사고는 순직 군인 가족을 비롯하여 동료들과 관계자 모두에게 심리적 충격과 상실감을 부여한다. 군 조직 전체의 충격과 상실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물질적·정서적 지원체계와 자원연계, 정책 건의에 이르는 공식적인 사회복지실천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미국[10]과 이스라엘[11]에서 시행되고 있는 군 사회복지실천 프로그램은 공식적인 체계로 지원되며 순직 군인 가족들을 위한 국가 정책의 한 부분으로도 활용되어 왔다. 또한 각기 다른 상실 단계를 인정하고 그에 맞는 개입을 하도록 하며, 고립된 감정 속에서 정체성 상실을 막기 위한 예방 노력도 하고 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 사회복지실천 서비스가 중점을 두는 것은 군인의 순직으로 인해 유가족들이 군조직과 친밀한 관계가 축소되었다

10) 순직 가족의 경우 ID카드를 발급 받으면서 기존과 동일하게 TRICARE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군 내 의료서비스와 이전에 선택한 국립 병원 안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거주 하는 군 사시설 안에서의 편의 시설과 레저, 레크리에이션 관련 혜택 이용, 식료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Commissary 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다(http://militaryhomefront.dod.mil/).

11) 군에 대한 명예와 사기가 투철한 이스라엘은 의료지원지방청은 사망한 첫 주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유가족에 대한 가정을 방문하여 위로하는 사회적 지원 제공 한다. 사회복지사는 유가족의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정보와 수혜 자격 관련 조사는 물론 필요한 특정 서비스나 혜택에 관해 판단, 지원, 개인적 적응, 부모-자녀 관계, 교육 및 직장 내 적응에 관한 특정 문제에 대한 개입을 한다. 어려움이 있는 분야는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연계와 다른 서비스를 통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http://www.mpva.go.kr/me-05/05.asp).

는 점을 감안하여 감정의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지지하는 것이다(Litwack and Foster, 1981).

순직공군조종사 부인들은 군 조직 내에서 배우자의 존재가 잊혀져가고, 자신의 위치, 역할, 소속이 상실되는 현실에서 큰 소외감과 심리적인 아픔을 경험했다. 순직 군인 배우자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소속감과 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순직 사고 직후 위기개입을 비롯한 정보 제공과 정서적 지지를 비롯한 다양한 보호체계를 활용하여 사회재적응이 쉽도록 공식적인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국가 보훈처와 연계하여 시대 상황에 맞는 유가족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가 보훈처는 연금 수령과 관련한 물질적 보상에 대한 관리를 위해 순직 군인 배우자의 인적 상황을 조사해 왔고 조사의 실질적 목적은 재혼여부에 따른 연금수급 대상자 확인이었다. 유가족들의 개별성을 고려한 사회복지실천의 사례관리(case management) 시스템을 접목시켜 필요한 정보와 지원책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군 조직에서는 조직 내 자원을 이용하여 군 조직을 위한 공헌을 잊지 않고 있다는 지속적인 관심 표명을 통하여 전몰·순직군인 유족의 소속감과 정체성을 향상시켜주어야 한다. 자체 행사나 유가족을 위한 프로그램, 군 조직 안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자조모임이나 유가족, 국가 보훈처와의 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긍정적인 신념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지해 주도록 해야 한다. '전쟁'과 '군'은 지금까지 가부장적인 요소와 남성 중심의 정치성을 대표해 왔고 여성은 중요 정책 부분에서 배제되었다. 하지만 앞으로 지구촌 평화 유지를 위한 노력은 여성이 함께 동참해야 하며, 현재까지도 국제정세에 따른 국가존립을 위해 개인의 목숨도 불사해야 하는 군조직에서 정신적 스트레스(남편의 순직 전 군 조직 내 생활에서 남편의 임무수행에 따른 여러 일상)를 받고 있는 군인 배우자 또한 그들의 희생을 인정받아야 한다. 보훈정책[12]을 비롯한 공적 영역에서의 공론화의 발현과 정책 건의에 대한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옹호, 대변, 지지자의 역할이 필요하며, 레질리언스의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는 신념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사회복지실천 서비스의 활용, 자조 집단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성한부모와 사별, 그리고 군인 순직에 대한 각각의 연구에서 벗어나 레질리언스의 보호요인과 관련된 본질을 찾기 위해 세 가지 주제를 통합시켰다. 순직군인 배우자의 사회재적응은 개인적 성격과 자아 역량 강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역사적 맥락에 따른 포괄적인 사회 지지체계가 필요하고 국가보훈처 및 군 조직의 관심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관심과 포용을 실천하기 위해 군 사회복지실천에 대한 활용을 제안하였다. 또한 앞으로

12) 의료지원은 보훈병원에서 60% 감면과 위탁지정 병원의 가료지원 불가능으로 심리적 충격으로 많은 질병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많은 순직군인 배우자들에게 거리·비용 등 여러 부분에서 실질적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배우자 재혼, 국적 상실 경우 보상권리 소멸로 인해 사회 변화에 따른 행복추구, 생존을 위한 선택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프랑스, 미국, 영국은 재혼과 동시에 수급권을 상실하지만 재혼 배우자 사망 시나 이혼했을 때 수급권을 부활하고 있으며, 호주(Australia)는 재혼 여부와 상관없이 연금을 계속 지급한다. 그리고 거주지 무료 진료를 시행하고 있다(김미숙 외, 2005). 순직군인 배우자가 어떠한 이유로 재혼을 하거나 또는 재혼에 실패해 다시 혼자되었다고 해도 과거 '군인의 아내'였다는 역사성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과거 순직 군인 부인의 순직군인에 대한 희생과 국가 공헌의 가치에 대한 인정(approval) 여부를 사회 변화에 따른 현대사회 구조에서 이해하고 여러 의견을 수렴하여 순직군인 배우자의 진정한 권리와 행복을 위한 담론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상실’을 중요한 이슈로 다루어야 할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 죽음의 유형과 성격에 따른 개별적인 의미 부여와 사회역사적 맥락의 통합적인 이해가 레질리언스 보호 요인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각인시켜 주었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개입 방안에서 쉽게 간과 될 수 있는 ‘의미부여’와 ‘신념체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당위성을 보여주었다.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에 대한 진술이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진행되지 않고 개개인의 특수한 기억에 의존하였다는 점이며 연구자가 듣고 싶은 경험만 들을 수 있는 잘못을 범할 수도 있다는 점이었다. 엄숙한 증언이나 통계적 수치가 아닌 ‘구술’을 연구 분석한 것은 주관적인 경험을 강조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연구 참여자의 해석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었고 개인의 경험과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공식적인 담론을 뒤로 하고 근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 후속연구에서는 시대의 흐름에 따른 자조집단의 역동성을 분석해 보고 우리나라 군 조직에서 가능한 위기개입과 실질적인 사회복지실천 서비스의 개입 모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길귀숙. 2004. “노인 만성질환자의 케어 및 호스피스 서비스 이용 관련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24 : 239-275.

김기봉. 2004. “직업군인의 국가보훈정책 인지도와 군 조직 효과성과의 상관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 보상과 예우 정책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석사 학위논문(미간행).

김기태. 2006. 『위기개입론 3판』. 대왕사.

김미숙 외. 2005.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우. 2004. “죽음으로 인한 유가족들의 일상적 삶의 위기와 재편”. 부산대학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김상희. 2005. “성인 여성의 배우자 사별 체험” 고신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김순옥. 1992. “임종환자 가족이 지각하는 죽음과 관련된 문제”. 이화여자대학교 간호교육학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일환. 2003. “국가보훈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부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용분. 2005. “자살로 인한 사별 가족 경험”.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김진희. 2007. “한부모 적응의 영향 변인 연구 : Mccubbin의 Double ABC-X 모델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김종성. 2006. 『한국보훈정책론』. 일진사.

김혜란. 2006. “한부모 여성가장의 스트레스원, 사회적 지지, 스트레스 수준”. 신라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박세경. 2005. “구조적 측면의 다양한 가족실태와 사회적 지원 방안”, 『보건복지포럼』.

손지영. 2007. “배우자 사별이 노인의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송권면. 2005. “보훈서비스의 효율성과 형평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심우영. 2006. “사별 여성 노인의 생활불안과 사회적 적응”.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유영옥. 2005. 『국가보훈학』. 홍익제.

윤연상. 2005. “전몰·순직 군경 배우자의 생활실태와 보훈복지 정책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협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이윤수. 2007. “유방완전절제술을 받은 여성의 심리사회적 경험 : 자조 집단 참여자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9: 99-124.

이은경. 2000. “편모의 심리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 일반모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임보래. 2004. “건강한 한부모 가족의 특성과 관련 변인에 관한 연구”. 안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조희선. 1991. “모자가족과 부부가족의 가족스트레스에 관한 비교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미간행).

전미영. 1997. “암으로 사별한 가족의 복원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미간행).

최희정. 1997.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한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성년 및 중년기 여성을 대상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허정은. 2003. “여성 한부모의 힘기르기(empowerment)와 지지 집단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미간행).

월간조선사. 2002. 『월간조선의 군대 종합 가이드 북』.

조선일보. 2006. 6.26.

Atchley, R. C. 1994. “Dying, death, bereavement and widowhood”. *Social Forces and Aging*. pp. 339-357.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Ben-Ari, Eyal. 2005. “Epilogue: A 'Good' Military Death”. *Armed Forces and Society* 31(4): 651-664.

Bonanno, G. A., R. M. Nesse, and C. B. Wortman. 2004. “Prospective Patterns of Resilience and Maladjustment During Widowhood. *Psychology and Aging* 19(2): 260-271.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Existential Phenomeno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Valle R. and King M. eds).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48-71

Colaizzi, P. 2002. “Psychotherapy and Existential Therapy”. *Phenomenological Psychology* 33(1): 73-112.

Israel, B. A. 1982. Social networks and health status: Linking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Patient Counseling and Health Education. 4. 65-79.

Keith, P. M. 1988. Investigation of a typology of life and death as an indicator of quality of life. Omega 37(2): 151-165.

Leichtentritt, R., and K. D. Rettig. 2000. *The good death: Reaching an inductive understanding*. Omega 41(3): 221-248.

Litwack, L. and C. L. Foster. 1981. Isolation and Identity: Loss in the Military. *Personnel and Guidance Journal*. 59(6): 386-389.

Lynch, M., and J. Abrahm. 2002. Ensuring a good death: Pain and palliative care in a cancer center. *Cancer Practice* 10(1): 33-38.

Maciejewski, P. K., B. Zhang, S. D. Block, and H. G. Prigerson. 2007. “An Empirical Examination of the Stage Theory of Grief”. JAMA 297: 716-723.

Marks, N. F. 1996. Midllife marital status differences in social support relationships with adult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6(1): 5-28.

Milgram, N. A., and K. Bar. 1993. "Stress on Wives Due to Husbands' Hazardous Duty or Absence". *Military Psychology* 5(1): 21-39.

Shuchter, S. R., and S. Zisook. 1993. *The course of normal grief.* In M. Stroebe, W. Stroebe, and R. O. Hansson(Eds), Handbook of bereavement: Theory, research, and intervention 23-43.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Ungar, L., and V. Florian. 2004. What Helps Middle-Aged Widows With Their Psychological and Social Adaptation Several Years After Their Loss?. *Death Studies* 28: 621-642.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iy resilience.* Guilford Press.

Weiss, R. S. 1988. Loss and Recovery. *Journal of social issue* 44(3): 37-52.

소광희 역, 1998. 존재와 시간. Max Niemeyer Verlag Gmb H and Co. KG, Tubingen. 1993. *Martin Heidegger, Sein und Zeit.* 경문사.

何顯明. 1993.『死亡心態』. 현채련・리길산 역, 1999. 죽음 앞에서 곡한 공자와 노래한 장자 . 예문서원.

공군 홈페이지. http://www.airforce.mil.kr/

국가보훈처 홈페이지. http://www.mpva.go.kr/

http://media.daum.net/nms/service/news/print/print-newsid=20)

http://www.militaryhomefront.dod.mil/

http://www.mpva.go.kr/me-05/05.asp.

Social Readjustment Experience of Military Widows as Single Mothers

Lee, Yoon-Soo
(Pusan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s to understand, in the view of resilience, the experience of military widows, whose husbands died while on active military duty and have lived as single mothers for a long time. This study using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on Phenomenology, especially using Colaizzi's process of data analysis. 99 meaningful sentences, 26 themes, and 10 theme clusters has been categorized from the interview of 9 military widows, who has been participated a self-help group for them. The 10 theme clusters are 'denial and grief over the death of spouse', 'ambivalence over the duty of their husbands', 'acceptance of the helpless fate and arduous fight to live', 'sorrow in the social and historical context', 'responsibility and endeavoring of parenting', 'self-existential challenge', 'immanent belief system as a military widow'. 'effort to find self-identity in the outer systems', 'wish to reassure their existence', and 'to find the meaning of life after husband's dead'. These their self respect and feeling of honor have become their belief system in their life, which they have raised their children and take their responsibilities with their best effort. The self-help group has helped them to find their self-identity and has sustained emotionally healthy. This group has been also empowering them through their voices being heard to the outside society. They have made an effort which their existence is recognized by the country and the military system. The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a system to gather opinions and to provide information and program which may be accepted politically and then applicable and integrated social work service through the social support system and networking.

Key words: ??????????????????????????????

[논문 접수일 : 2008년 11월 3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12월 10일]

부록 1. 현상학 연구를 위한 프로토콜 중 일부

연구자 경험적 지식

석사 논문 '군생활 내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군사회사업 필요성'의 후속 논문을 고민하던 중 사회복지와 군의 본질을 생각하게 되었다. 비록 군복지와 사회복지는 분명한 차이 있으나 군인은 최고 사명인 '국가 존립'을 위해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기본적인 직무특성에 생각이 머물게 되었고, 그에 대한 동기와 근본적인 본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다. 그 생각은 순직공군조종사 부인들에 관한 짧은 신문기사를 보면서 더 심화되었고, 군인의 아내는 국가를 위해 임무수행을 하는 군인보다도 더 큰 희생을 감수하는 숨은 공로자가 아닐까?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다. 샨사의 '바둑 두는 여자'(이상해 역, 2002 : 56)를 보면 이러한 구절이 나온다.

"...'충'과 '효'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군인은 자기 가족의 행복을 희생시키는 사람이다... 내 존재가 조국에 쓸모가 있다면 그것은 순전히 한 여인의 '자기희생' 덕택이다..."

이 소설에서 일본 군인이 그리고 있는 한 여인은 '자신의 어머니'였다. 하지만 원가족에서 독립하여 자신의 가정을 이루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 여인은 '어머니'에서 '아내'로 옮겨가게 된다.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희생의 의미는 더욱 깊게 새겨진다. 이렇게 본다면 '충'과 '애(愛)'를 동시에 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연구 배경은 연구 수행의 큰 기반이 되었다...

부록 2. 반구조화 질문지(interview guide) 요약

1. 기본 인적 사항 질문 2. 순직과 관련된 경험(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사고 후 상황과 심리상태/사별을 접하고 어떤 생각과 고민이 있었는지/순직 공군 조종사 부인으로서 특별히 고통스러웠던 점/당시 '순직'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었는지/자조 집단은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의의를 가졌는지/배우자 순직 후 현재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에게 힘이 되었던 점/살아온 삶에 대한 평가) 3. 여성한부모로서 사회역사적 경험(지위, 역할 등 사회관계에서 변화된 위치/일상생활에서 배우자 생각이 더 특별했던 상황/여성한부모로서 겪었던 어려움과 재혼을 하지 않았던 이유/자녀가 생각하는 순직한 아버지에 대한 내용/순직유가족으로서 시대적 분위기에 따라 느꼈던 점/배우자와의 사별 원인이 '비행 훈련 중 순직'이었다는 점과 삶의 경험에 대한 관계

부록 3. 공군 조종사의 직무특성과 생활

공군 조종사 조직의 직무 특성을 살펴보면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떤 환경과 시간 속에서도 비행을 실시하는 것이다(위험한 야간 비행 포함). 그리고 주말이나 휴일을 포함하여 365일 비상대기 임무를 맡게 된다. 물론 교대 근무를 하게 되나 근무 부담은 다른 직무보다 큰 것이 사실이다. 둘째, 공군 조종사의 공중 근무(작전 비행 훈련)직무는 항상 생명 위험의 부담을 안고 있다. 다른 직무와 달리 비행에 있어서 조그마한 실수는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조종사는 항상 비행안전에 많은 부담을 안고 비행에 임하는 직무특성을 가지고 있다. 셋째, 조종사의 임무는 전술적이며, 작전 내용이 많고, 임무 완수를 위해 고도의 육체적 조건을 유지해야 한다. 즉, 계획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수많은 전술적 상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에 대한 처치뿐만 아니라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육체적으로 완벽한 조건을 유지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임무가 타인에게 이전됨으로써 타인에게 엄청난 부담을 안겨주게 된다. 따라서 공군조종사 조직은 정신적 혹은 육체적으로 완벽을 요구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신적 육체적 노동이 타 직업에 비해 월등하다고 할 수 있다(신승호, 2002). ... 항공기를 조종한다는 것은 정말로 냉혹한 현실이다. '비행에 관한 한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극한의 위험 상태에서 자신의 감각을 믿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 자신이 직접 느끼고 있는 사실 자체를 '허구'라고 인식해야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부정해야 하는 혹독하면서도 기괴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빨간 마후라는 그들이 겪어야만 하는 피와 눈물의 상징으로 보인다...최악의 추락 사고에도 마음대로 죽을 수조차 없는 게 공군조종사이며, 죽는 것 자체가 군과 국민에 대한 불충으로 여기고 육체와 정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생환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무인지경의 심산유곡, 망망대해에 비행기가 떨어지면 어떻게든 살아서 돌아와야 하기 때문이다(서울신문, 2007. 6. 22). 이렇게 그들이 겪는 수많은 육체적 한계에 대한 도전과 번민, 그리고 그 고통스러움을 이겨나가야 하는 과정은 결코 돈으로 따질 수 없을 것이다. 더욱이, 국가수호라는 그 소중한 가치에 모든 것을 던지고, 목숨까지 걸고 있는 그들의 하루하루에 누구도 감히 계산기를 들이댈 수는 없으리라(강수정 · 이남훈, 2006).

부록 4. 현충원의 묘비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이 푸르름을 어이두고 간단 말이오
하지만 남기신 두 열매 피맺혀 가꾸오리
근심일랑 제게 주고 편히 쉬세요'
'아빠! 여보! 못다 한 이 한마디를...'

'하늘을 동경하며
하늘을 지키다가
하늘의 품으로'

(분석 결과에 사용한 유품 등에 관한 사진과 해석, '연구를 마무리 하면서' 이외의 부록은 이윤수, 2008 부산대학교 박사논문을 참고)

강수정 · 이남훈. 2006. 『하늘여행』. 전나무숲.
신승호. 2002. "조종사의 욕구만족도에 관한 실증적 연구: A.H. Maslow 욕구단계 이론을 중심으로". 국방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이상해 역. 2002. 바둑 두는 여자. Sa Shan. 2001. *(La) Joueuce de go*. 현대문학북스.
서울신문, 2007. 6. 22